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김세연, 윤주안, 김예원

Synopsis & Biblical Interpretation

Synopsis 시놉시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소녀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보살핀 은주, 디자이너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엄마와의 갈등과 가난한 환경이 있었기에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개팅에서 양장점을 하고 있는 구영호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자신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만 남편인 영호의 양장점이 도둑을 맞게 되고 부부는 절망 가운데 양장점을 폐업하게 된다. 양장점을 폐업하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다시 예전처럼 양장점을 운영할 때처럼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호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살기로 다짐하게 된다.

Biblical Interpretation 성경적 해석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는 윤점순 여사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구성된 연극이지만 단지 윤점순 여사님의 인생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일, 나쁜 일 등등 여러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상황에 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지 못하고 찾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고 있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깊은 뜻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극을 보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거나 현재 자신에게 놓인 상황을 생각하게 하고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Information About the subject Of a play

연극 대상 : 윤점순 여사님

연극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는 드림미 3기생 김세연 학생의 외할머니이신 윤점순 여사님의 인생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연극입니다.

어린 시절 윤점순 여사님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고 의상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양장점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많이 가난했기에 윤점순 여사님은 꿈과 학업을 포기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남편이 운영하던 양장점에 도둑이 들면서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셨습니다.

이 극을 제작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인터뷰를 통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남편분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등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여사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모아 제작하였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것들이 많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자는 메시지를 담아 연극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Product Plan

장/막	등장인물	장면	음향	조명	장비/소품	연기/연출포인트
#1	윤은주 윤은수 (남동생) 구영호 (남편) 정지숙 (엄마) 나레이션	은주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집을 치운다. 그리고 동생들을 재운다. (동생은 목소리만 출연) 은주가 지숙한테 양장 학원 이야기를 꺼낸다. 과거를 회상한다.(소개팅) 소개팅에서 청혼을 받는다.	나레이션 때 Big dream - With You	은주가 대사를 치며 무대로 들어옴 -> 조명 on 은주 마지막 대사 후 소개팅 자리로 걸어감 -> 핀 조명 in 남편 마지막 대사 -> 서서히 핀 off 나레이션 걸어나옴 -> 중앙 핀 on 나레이션 후 off	탁상, 책상, 의자 3개, 빨랫감, 컵 3개, 주전자, 쓰레기들 또는 장난감, 설거지감, 엄마의 가방	집(과거) 윤은주 - 간절하지만 조심스러운 듯 양장점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소개팅 구영호 - 청혼 멘트 할 때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대사를 해야 한다. 보는 사람이 다 긴장되게.
#2	윤은주 구영호 (남편) 나레이션	집에서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영호가 출근하려다 집에 키를 두고 간 것을 알고 다시 집에 간다. 남편을 보낸 후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에서 교회에 가는 것을 권유받는다.	나레이션 때 Big dream - Morning Coffee	조명 하나로 유지 -> 노란 색, on 은주가 성경책을 읽는 것을 몇 초 정도 보여줌 -> 몇 초 후 off 나레이션 중앙에 도착한 후 -> 중앙 핀 on 나레이션 후 -> 핀 off, 나레이션 나갈때까지 암전	블레이저, 거울, 걸레, 달력, 컵, 전화기, 열쇠, 신발, 책장, 성경책	열쇠 줄 때 구영호 - 정말 급하게 뛰어온 것 처럼 연기 성경 찾기 윤은주 - 성경 책장에서 조금 오래 찾기
#3	윤은주 구영호 (남편) 나레이션	남편이 바쁘게 출근준비를 한다. 남편이 키를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다가 은주 덕분에 찾게 된다. 교회 목사님과 전화를 하다가 교회 집사님 가게가 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어서 남편에게 전화가 오고 자기네 양장점이 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은주는 통화 후 절망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성경을 읽는다.	영호에게서 전화가 오고 은주가 "설마" 라고 하자마자 바로 BGM Oppsite Way -> 나레이션 끝까지 재생 유지	노란빛 조명에서 살짝 붉은 색을 더한 조명으로 시작 양장점에 도둑이 들었다고 연락을 받는 장면에서 -> 은주 핀 on 영호 나오면 -> 영호 쪽 핀 on 전화 끊고 -> 영호 핀 off 성경 읽은 후 -> 전체 암전 나레이션 중앙 도착 후 -> 중앙 핀 on 끝나면 -> 핀 off	리모컨, 가방, 행거, 컵 2개	신발 안신은채로 집 들어올 때 구영호 - 보는 사람이 공감하도록 도둑맞았을 때 윤은주, 구영호 - 전화라도 목소리에 다급함이 느껴지게

Product Plan

장/막	등장인물	장면	음향	조명	장비/소품	연기/연출포인트
#4	윤은주 구영호 (남편) 나레이션	<p>은주가 집에서 tv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다.</p> <p>남편이 은주가 보고 있는 tv채널을 돌리고, 채널로 살짝 티격태격 하다가 tv를 끈다.</p> <p>tv를 끄고 은주와 남편이 대화를 하며 예전 양장점 이야기를 꺼낸다.</p> <p>남편이 은주의 손을 잡고 대사를 말한다.</p>	tv 볼 때 tv 소리	<p>붉은 색 조명 유지</p> <p>구영호 : 천생연분으로 만남시다 멘트 끝나고 -> 서서히 조명 off</p> <p>나레이션 걸어나옴 -> 중앙 핀 on</p> <p>나레이션 후 off</p>	리모컨, 서류가방, 행거, 컵 2개	<p>현재 양장점을 정리 후 삶을 살고 있으므로 영호와 은주는 조금 더 여유롭고 노년의 사랑을 보여줘야함.</p> <p>영호와 은주는 자신의 속 마음을 이야기할때 조금 더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함.</p>
#5	윤은주 윤은수	<p>빨래를 개고 있는 은주가 등장 동생에게 전화가 온다.</p> <p>전화를 받고 동생이 양장점 이야기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 받는다.</p> <p>전화를 끊고 빨래를 개면서 찬양을 흥얼거린다.</p>	<p>동생이 전화걸 때 전화벨 소리</p> <p>노래 흥얼거리다</p> <p>자나깨나부터 노래 재생</p>	<p>우측 핀 조명과 전체조명을 알게 사용한 채로 유지</p> <p>노래를 부른 후 -> 서서히 off</p> <p>커튼콜 -> 서서히 얇은 조명 in</p> <p>전체 인사 다 끝나면 -> 서서히 조명 off</p>	전화기, 의자 1개, 액자, 탁상, 빨랫감	<p>은수와 전화</p> <p>윤은주 -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잃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잘 표현해야함</p>

CAST



김 세 연
윤은주 역



윤 주 안
구영호 역



김 예 원
정지숙 역 / 나레이션

<잊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 대본 -

일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1

윤은주 : (집 안 정리를 하고 있다) 애들아~ 얼른 씻고 나와 이제 자야지

윤은수 : 누나, 근데 엄마는 언제 와? 오늘도 또 늦게 와?

윤은주 : 엄마 일하러 가셨어, 이제 곧 오실 거야

윤은수 : 곧이 언젠데?

윤은주 : 너희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 금방 오실 거야 그러니까 얼른 이불 덮고 누워

윤은수 : 알았어.. 누나는 언제 자..? 재워주면 안 돼? 우리끼리 자면 잠 안 온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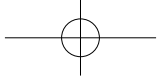
윤은주 : 누나 빨래 개야 해 먼저 자고 있어 곧 갈게

윤은수 : 알았어..

윤은주 : (널브러져 있는 빨래를 쳐다본 후 한숨을 쉬며 개기 시작한다)

빨래를 개기 시작한 후 한참 뒤

지속은 들어와서 가방 내려놓은 후 쌓여있는 설거지를 본다



윤은주 : (인기척이 난 쪽을 돌아보며) 어 엄마 언제 왔어?

정지숙 : 방금 왔지, 근데 너, 설거지 안 했어?? 어휴 냄새, 엄마가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일하고 와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써야 해? 다음부터 잘 해줘. 어디 봐, 이걸 다 깐 거지? (쿵쿵 냄새를 맡는다)
어머,이거 냄새가 왜 이래? 제대로 빨 거 맞아? 으이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얼른 들어가서 자 엄마가 마저 할게.

윤은주 : 알았어 (정리하며 일어난다, 쭈뼛쭈뼛 엄마 눈치를 살핀다)

정지숙 : 뭐해 얼른 들어가라니까 ~

윤은주 : (판청을 피우며) 아니.. 그냥 엄마 요즘 장사는 잘 되나 해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나?

정지숙 : 뭐 늘 똑같지.. 오늘도 손님 두어 명 겨우 왔다 갔어...

윤은주 : 아니 나 오늘 옆집 미영이 만났는데, 양장점 학원 다닌다고 하더라고...

미영이네 엄마도 엄마랑 같이 일하는 거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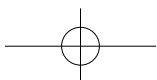
정지숙 : 그래? 난 침 듣네. 누군 애들 옷 사 입힐 돈도 없는데...학원?

그런 거 다닐 시간에 다른 거 뭐라도 했겠다

윤은주 : 근데 엄마 나도

정지숙 : 너는 절대 그런 쓸데없는 거 할 생각하지 말고 하던 거나 열심히 해.

그거 다 시간 낭비야. 알지? 이제 얼른 들어가서 자



윤은주 : 알았어 엄마도 빨리 자

테이블로 가서 앉는다.

구영호 : 그게 다예요? 한 마디도 못 꺼냈다고요?

윤은주 :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론 아예 접었어요. 엄마도 힘 들어하시고 어린 동생들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엄마 말이 맞긴 해요, 옷 사 입을 돈도 없으면서...

구영호 : 그래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딸 꿈도 안 들어주셨을까요?

윤은주 :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딸 꿈, 말했으면 도와주셨겠죠. 근데 딸은 하나밖에 없지만 아들은 여섯 일 걸요, 저 때문에 동생들을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되는 형편에 꾸역꾸역 지원해 줄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구영호 : 어머니는 참 좋은 딸을 두셨네요..

윤은주 : (웃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미용사도 하고 싶고 양장점도 해보고 싶고.. 꿈이 참 많죠 근데 그것도 사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안되는 거 알지만 꿈은 꺾도 되는 거 같아요

구영호 : 꿈.. 좋죠. 은주 씨, 제가 은주 씨 꿈 다 이루어드리진 못하겠지만, 저 그래도 양장점은 있습니다, 꿈 이루어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꿈도 이루면서 저랑 같이 살아요.

암전

내레이션 : 그날, 나는 청혼을 받았다. 몇 번 만나보지 않은 상대에게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랜 시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운명이었기에 그렇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결혼 후 행복한 생활을 했다. 영호 씨는 내가 원하던 양장점 운영이라는 꿈을 이루어 주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많은 꿈들을 이루어갔다. 부유하지는 않았어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2

윤은주 : 잘 다녀오세요, 오늘도 일찍 오는 거죠?

남편 : 아 오늘 옆에 구두점 양반이 가족 좀 같이 봐달라고 해서 그거 봐주고 오면 저녁 먹기 전엔 울거야 배고프면 먼저 밥 먹고 있어 여보.

윤은주 : 그렇구나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구영호 : 네 전화할게요 여보

영호가 출근한 후 길레로 선반을 닦다가 영호의 열쇠를 발견한다

윤은주 : 어 이거...이게 왜 여겼지 이거 양장점 열쇠 아닌가..?

그때 영호가 뛰쳐들어온다.

구영호 : (헉헉대며) 아니.. 키.. 키를...두고 가서.. 키 좀 줄래요

윤은주 : (키를 건네준다)아.. 여기요

구영호 : 다녀올게요 여보

윤은주 : (웃으며)네 조심히 다녀와요

은주는 다시 걸레를 집어 들며 선반을 닦으려는데 전화가 온다.

전화벨이 울린다 Rrrrrrrr

윤은주 : 여보세요? 네 어머니 방금 출근했어요. 어떤 일이세요? 아~~ 이따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몇 시쯤이오? 3시오? 네네 일정 없어요 어머니. 앗 네... 교회요...? 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유 어머니가 오라는데 가야죠.. 과일 좀 깎아 갈까요? 네네, 성경책이요? 성경 책.. 책장에 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찾아보고 들고 갈게요. 네 이따 빌게요~!!

윤은주 : (책장을 살피며) 성경 책이~~~.... 개역개정.. 성경. 이건가?

어머 성경 책이 있었네?

성경 책을 자연스럽게 펼쳐 보기 시작.

내레이션 : 어머니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성경에 적혀 있는 말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몰랐다.

그러다가 어머니를 따라 계속 교회를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조금은 깨닫게 되었다. 성경에 적힌 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나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었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또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된 것들을 항상 감사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다.

#3

윤은주 :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오늘도 늦어요?

구영호 : 아마? 손님들 주문이 한두 개 들어온 게 아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윤은주 : 그렇게 바빠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봐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아 맞다. 열쇠는요? 열쇠 챙겼어요? 또 까먹고 두고 갈라.

구영호 : 아 맞다 맞다. 어제 탁상 위에 둔 것 같은데,

윤은주 : 없는데요?

구영호 : 저기 탁상 밑에 한번 봐봐요.

윤은주 : 없는데요?

구영호 : 아니 잘 찾아봐 저기 저기

윤은주 : 아니 진짜 없어요..

구영호 : 아니 저기 그.. 아이(신발 벗을까 말까 고민하다 벗지 않고 불편하게 들어온다)
나와 남편은 열심히 찾다가..

윤은주 : 왜 없지.. 여보 주머니는 확인해 봤어요? 설마 주머니에 있는 건 아니죠?

구영호 : (주머니를 확인한다)에 이 내가 그것도 확인 안 해봤겠..

모두 일시 정지 키는 주머니에 있었다.

구영호 : (키를 꺼내들고 다시 불편하게 현관으로 간다) 다녀올게 여보

윤은주 : (웃으며) 이 이도 참. 조심히 다녀와요.

(성경을 읽으러 간다)

성경을 읽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전화기를 잡는다.

전화번호부 또는 번호가 적힌 종이를 보며 전화를 건다 (주보도 가능)

윤은주 : 네 혹시 연정 교회 목사님 댁인가요~~ 네 사모님 저 은주입니다. 평안하시죠~? 네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우 네 들었어요 소식. 요즘 저희 양장점도 괜찮아져서 되니 일 새벽에배 끝나고 잠깐 뵈까 해서요. 네? 권 집사님 가게가 도둑이 들었다고요? 어쩐 좋아요. 괜찮으시나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울게요. 당연히 도와야죠. 같은 일 하는 사람끼리. 네 물어보시고 꼭 연락 주세요. 아니에요. 저희 요즘 괜찮아요. 꼭 연락 주셔야 돼요? 네 네네 들어가세요~ 꼭 연락 주세요~(끊는다)

윤은주 : 어머 어찌면 좋아... 돈이라도 조금 보태드려야 하나? 걱정이네..

전화벨이 울린다.

윤은주 : 네 사모님. 저도 방금 마침 생각하던 중인데, 어머.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예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네?

구영호 : 아 아니 그게.. 여보.. 우리 가게가... 우리 가게가... 내가 분명 밤에 문단속을 꼼꼼하게 했는데...

윤은주 : 설마.. 아니죠 여보? 그럴 리 없어요.. 여보 말 좀 해봐요

구영호 : 아니긴 뭐가 아니야! 굳이 말해야 알아!?

윤은주 : 경찰에 신고는 했고요? 비단들은요?! 일단 비단들이랑 옷 디자인해놓은 서류, 서류들부터 찾아봐요

구영호 :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비싼 비단들부터 작은 원단들까지 싹 다 훑쳐 갔어...

윤은주 : 금고도요? 그래도 중요한 서류들은 있을 거 아니예요!

구영호 : 몰라요...난장판이어서 뭐가 어딴지도 못 찾겠소... 아니 그리고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 봤는데 잡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네.. 요즘 너무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라. 경찰들도 힘쓰고 있는데 소용없나 봐... 미안해 여보.

윤은주 : (적막이 흐른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구영호 : 우선 빨리 수습하고 집에 갈 테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요

윤은주 : 알겠어요...조심히 와요

영호와 전화를 끊는다

윤은주 : (평소처럼 성경 책을 펼쳐서 읽다가 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암전

내레이션 : 믿을 수 없었다.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내가 보는 지금 이 순간이, 꿈이기를 바랐다.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눈앞에 펼쳐지니 막막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책뿐이었다. 힘든 상황도 상황인데 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원망은 나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말았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맞는지, 정말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 시선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다.

#4

TV를 보던 은주. 남편 퇴근.

윤은주 : 언제 왔어요? 연락하고 오지 밥이라도 차려 놓을 텐데.

구영호 : 괜찮아 여보. 밥 먹고 왔어. 아직까지도 안 자고 있었어요? 피곤할 텐데..

(겉옷 벗고, 가방 내려놓고 등등)

윤은주 : 이것만 보다 자려고요

윤은주 : (관객을 보며) 어우 저거 저거 정말.. 쫓

구영호 : 뭐 봐요? 재미있어요?

윤은주: 이거 요즘 제일 유명한 연속극이잖아요. 몰라요?

구영호 : 그래?

윤은주: 저 여자가 저 남자랑 부부 사이인데 저 여자가 저 남자랑 바람 쫓겨든요
근데 저렇게 뻔뻔하게 살잖아요

구영호 : 어.. 그래?

(눈치를 보며 TV를 다른 채널로 바꾼다)

윤은주: 아이 뭐야. 뭐예요 왜 다른 거 틀어요?

구영호 : 연속극 말고 뉴스 봅시다

윤은주 : 아 이것만 보고요 당신 뉴스는 매일 보잖아요

구영호 : 아니 어제랑 오늘이랑 소식이 다르지

윤은주 : 참나.. 뉴스가 다 비슷비슷하지 (다시 채널을 돌린다)

영호가 눈치를 보다 TV를 끈다..

윤은주 : 아이 왜 끄고 그래요?

구영호 : 아이 그냥 TV 보는 것보다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윤은주 : (웃으며) 차라도 한잔 마실래요?

구영호 : 차 좋지

은주가 차를 타고 있을 때 영호가 은주의 뒷모습을 보며 말한다.

구영호 : 여보 내가 항상 고맙고 미안해요.. 매일 집안일이나 시키고 당신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말도 못 지키고.. 요즘 많이 힘들죠?

윤은주 : 괜찮아요.(사이) 양장점 잃어버렸을 때.. 그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풍족하지도 않고 힘도 더 들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요. 당신도 그렇죠?

구영호 :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어깨를 주물러 준다) ...그래도 당신 꿈이라 꼭 이뤄주고 싶었는데,

윤은주 : 사실 당신이 양장점 정리하자고 했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장점이 어떻게 보면 당신이랑 결혼하게 해준 이음줄인데, 속상했죠 많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이렇게 밭 일하면서 사는 것도, 양장점에 도둑이 든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당신이랑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양장점 하나 없어진다고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신이 옆에 있는데 무얼 하든 행복할 수 있겠구나 했죠. 그래서 정리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당신 하나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아무 탈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 거고. 이제는 집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끄떡없어요. 같이 살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함께 고난을 견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거죠. 우리 처음 만날 때 생각나요? 그렇게 도망을 다녔는데, 결혼까지 한 걸 보면 천생연분이지 뭐예요 안 그래요? 우리 천국 가서도 천생연분으로 만나요.

구영호 : 그럼요 천국에서도 꼭 천생연분으로 만납시다.

암전

내레이션 : 양장점을 그만두고 난 후 한동안 절망 속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더 큰 위기들도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더 굳게 먹기로 했다.

내 앞에 놓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이 기쁨이든, 위기든. 내 앞에 펼쳐질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 보면, 양장점을 잃음으로써 나와 영호 씨는 더 돈독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별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찾은 일이 바로 밭일이었다.

밭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동생들에게서 끊임없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평생을 동생들을 키우고 동생들을 걱정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동생들을 걱정시키는 누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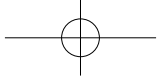
#5

빨래를 개고 있다.

전화벨이 울린다.

윤은주 : 어~ 은수야. 무슨 일이야?

윤은수 : 누나, 잘 살지? 아니 양장점 지나가다가 누나 생각나서 그렇지. 누나 어렸을 적에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집 안 형편도 안되니까.. 미안해 누나.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고. 하이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팔자 좀 피는가 했더니.. 하늘도 무심한지 그것도 홀라당 망해버렸잖아.



윤은주 : 너 그거 때문에 나한테 전화한 거야? 양장점? 그게 언제 적 애긴데 지금 묻냐.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교회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재밌어. 누나는 꿈은 못 이뤘어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고, 양장점도 해봤고, 하나님도 만났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만난 거 그게 제일 큰 축복인 거야.

윤은주 : 그니까 누나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윤은주 : 그러고 있어. 매일매일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게 요즘 내 삶의 낙이다. 너도! 기도 좀 해 인마! 맨날 욕심만 부리면 잘 될 일도 안되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다 준비해주시겠거니 하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누나는 양장점 그거? 속상하지도 않아. 다 그럴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거 없이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오히려 누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마.

윤은주 : 그렇담 다행이고. 누나 들어가 쉬어. 나중에 또 전화할 테니까. 뭘 일 있음 연락하고~

윤은주 : 그래 너도 잘 살아,, 기도 매일하고 끊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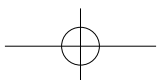
윤은주 : 어~들어가

윤은주 : (빨래를 개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서서히 암전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 Psalm 119 : 71 -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 시편 119편 71절 -